사계절 양잔디의 환상적인 골프장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함평 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탄력적인 그린피 시스템 운영
인터넷회원 예약시
평일 최대 3만원, 주말 최대 5만원까지 할인가능
예약 : www.hpdynasty.co.kr 061)320-7700,7714

전남 곽태휘

형이냐 아우냐 '광주 대격돌'

〈전남〉 〈광주〉

전남 드래곤즈 - 광주 상무 내일 시즌 첫 맞대결

상승과 추락,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전남 드래곤즈와 광주 상무의 '광주 대격돌'이 카운트 다운에 들어갔다.

27일 전남과 상무는 광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시즌 첫 맞대결을 갖는다.

지난 19일 전남은 부산 아이파크와의 6라운드 경기에서 2-1로 이기며 쾌조의 2연승으로 9위를 달리고 있고, 상무는 19일 전북 현대와의 경기에서 2골을 먼저 넣으며 시즌 2승째를 챙기는 듯 했지만 조재진의 기세에 눌려 2-3 역전패 했다. 이날 패배로 상무는 10위로 내려 앉으며 시즌 처음으로 전남을 추격하는 입장이 됐다.

지난해 FA컵 우승팀인 전남은 곽태휘, 고기구, 김치우 등 주전들의 줄부상과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일정이 겹치면서 지난달 8일 K-리그 개막이후 4경기에서 1무 3패를 기록하며 자존심을 구겼다. 14위로 최하위까지 곤두박질 쳤던 전남은 부상병들의 복귀와 함께 경남 FC와 부산을 잇달아 물리치며 9위까지 치고 올라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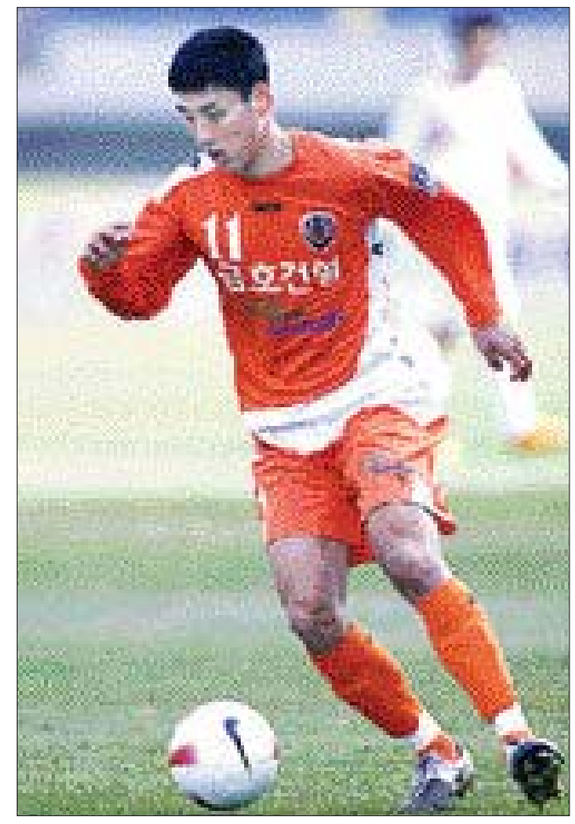
반면 광주 상무는 성남 일화와의 첫 경기에서 1-1무승부를 기록한 이후, 2라운드 경기에선 경남을 2-0으로 물리치면서 '꼴찌의 반란'을 일으켰다. 초반 4위까지 오르며 기세 등등했던 상무는 이후 2무2패로 10위까지 떨어졌다.

당초 예상보다 부진했던 전남은 4월 들어 전력이 수직 상승 중이며, 시즌 전 전력 외로 평가받았던 상무는 '다크호스'로 급부상했다가 소강상태에 접어드는 모양새다.

양팀의 전적은 1승 5무 9패로 전남의 절대적인 우위다. 하지만 상무는 골키퍼 김용대를 주축으로 국가대표 깜짝 발탁 주인공 한태유가 허리를 굳건히 지키면서 견고한 수비라인을 구성하고 있다.

전남은 시즌 4골을 합작한 광주의 김명중과 박규선 두 콤비의 매서운 공격력도 넘어야 한다.

첫 대결의 승패에 따라 두 팀의 순위가 뒤바뀔 수 있는 만큼 양팀은 적극적인 공격 공세를 펼칠 전망이다. 전남의 거침없는 상승세가 계속되느냐, 주춤했던 상무의 돌풍이 거세지느냐의 결과는 27일 오후 3시 확인할 수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광주 박규선

"챔피언 가리자"

맨유 - 첼시 오늘밤 격돌

맨유 이기면 우승 확정적

올 시즌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챔피언을 가리는 사실상의 결승전이 준비됐다. 박지성(27)이 활약하고 있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가 26일 오후 8시45분(이하 한국시간) 영국 런던 스탬퍼드브리지에서 첼시와 2007-2008 프리미어리그 36라운드 원정경기를 치른다. 세 경기를 남겨 놓은 현재 맨유는 승점 81(25승6무4패)로 선두를 달리고 있고, 첼시는 3점이 뒤진 승점 78(23승9승3패)로 뒤를 잇고 있다. 이번 맞대결이 사실상의 챔피언결정전인 셈이다. 맨유가 승리하면 리그 우승이 확정적이고, 첼시가 이기면 우승컵의 향방은 끝까지 가봐야 알 수 있다.

물론 첼시가 맨유전을 포함해 남은 경기를 모두 승리하더라도 맨유가 첼시전 이후 두 경기를 이기면 현재 골득실차(맨유 +54, 첼시 +36)에서 크게 앞선 맨유가 정상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4강에도 올라 있는 맨유로서는 리그 우승은 되도록 일찌감치 결정지어 놓아야 '더블(정규리그와 챔피언스리그 2관왕)' 목표 달성에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역시 챔피언스리그 정상까지 노리는 첼시도 프리미어리그 역전 우승의 불씨를 살리려면 맨유는 반드시 넘어서야 한다. 첼시는 주전 미드필더인 프랭크 램퍼드가 모친상을 당해 이번 맞대결에 출전하기 힘들지만 2004년 2월 아스날에 1-2로 패한 뒤 무려 4년 2개월 동안 홈 경기 무패행진 중이다.

새내기 오채아 신인 돌풍

엠씨스퀘어 KLPGA 생애 첫 우승

이름이 이채로와 관심을 끌고 있는 새내기 오채아(19·하이마트·사진)가 신지애(20·하이마트)의 2연패와 2주 연속 우승을 저지하며 생애 첫 우승을 따내 '신인돌풍'에 합류했다.

여자골프 세계랭킹 1위 로레나 오초아(멕시코)를 연상시키는 이름 탓에 '놀래라 오채아'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는 오채아는 25일 제주 크라운골프장(파72.6천300야드)에서 열린 한국여자프로골프 MBC투어 엠씨스퀘어컵 크라운CC여자오픈 최종 라운드에서 이븐파 72타를 쳐 3라운드 합계 3오버파 219타로 정상에 올랐다.

1언더파 71타를 치며 추격한 최혜용(18·LIG)을 1타차로 따돌린 오채아는 정규 투어에 뛰어들어 세번째 치른 대회에서 우승컵을 안아 신인왕 경쟁에 뛰어들었다. /연합뉴스

엑스포 도시 '여수' 도민체전 2연패

어제 폐막 … 최우수선수상 곡성 김문정 씨

여수시가 제47회 전남도민체육대회에서 2연패를 달성했다.

여수시는 지난 42~ 44회까지 대회 3연패를 달성했으나 45회 대회때 순천시에게 1위를 내준 후 지난해 다시 종합 우승을 되찾았다.

여수시는 폐막일인 25일 사격 남·여 결선에서 종합 2위를 차지, 유종의 미를 거두며 종합 점수 3만4천825점으로 여유있게 1위에 올랐다. 2위는 보성군(3만650점)이 차지했고, 3위 광양시(2만9천175점), 4위 신안군(2만7천550점), 5위 고흥군(2만7천450점), 6위 순천시(2만6천200점) , 7위 영광군(2만5천700점) 순이었다.

특히 고흥군은 지난해 19위에서 5위로, 화순군은 20위에서 10위로, 담양군은 17위에서 11위로 등위를 앞당겨 성취상을 받았다.

모범선수단에는 고흥군 선수단이, 모범경기단체는 전남육상경기연맹이 선정됐다.

최우수선수상은 볼링 3인조·2인조·개인종합에서 우승, 3관왕을 차지한 김문정(여·곡성군)에게 돌아갔다.

이밖에 이미영(여·해남군)이 육상에서, 조아름(여·광양시), 서매화(여·광양시)가 수영에서 3관왕에 올랐다.

단체종목의 경우 축구는 목포시, 테니스·배구는 보성군, 정구는 순천시, 탁구·유도·씨름 여수시, 배드민턴 화순군, 검도는 무안군에게 우승기가 돌아갔다.

내년 대회는 영광군에서 열린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고흥=주각중기자 gjju@kwangju.co.kr

LPGA 김영 공동 선두

스탠퍼드 인터내셔널 프로암 1R

한국 자매들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스탠퍼드 인터내셔널 프로암 첫날 상위권을 차지했다.

김영(28)은 25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인근 페어몬트 턴베리 아일 골프장 밀러코스(파70·6천133야드)에서 열린 대회 1라운드에서 버디 5개에 보기 2개를 곁들이며 3언더파 68타를 쳐 공동 선두에 올랐다.

작년 5월 코닝클래식에서 LPGA 투어 첫 우승을 차지했던 김영은 1년이 채 안 돼 다시 한번 우승컵을 들어 올릴 기회를 잡았다.

강풍이 부는 가운데 열린 첫날 김영은 12번홀(파3)까지 1타를 줄인 뒤 파행진을 했지만 17번홀(파3)과 18번홀(파5)에서 연속 버디를 잡아 공동 1위로 나섰다. 배경은(22·CJ)과 이미나(27·KTF)도 소퍼코스에서 2언더파 69타를 쳐 공동 4위에 자리했다.

박희영(21·이수건설)과 김미현(31·KTF)은 밀러코스에서 1언더파 69타, 안시현(24)과 김초롱(23)도 소퍼코스에서 1언더파 70타로 공동 11위에 올라 선두권을 추격했다.

/연합뉴스

김정길 체육회장

사퇴 의사 표명

사무총장 인선문제로 정부와 심각하게 대립중인 김정길 대한체육회장 겸 대한올림픽위원회(KOC) 위원장이 공식적으로 사퇴 의사를 밝혔다.

김정길 회장은 25일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체육회 긴급이사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체육회 88년 역사상 정부가 사무총장 인선을 거부한 사례는 없었다"고 말한 뒤 "이번 사건의 본질은 '너 나가라'라는 소리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회장직을) 물러나는게 국가와 체육회, 올림픽을 위하는 길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운을 뗀 그는 "구차하게 살아남느니 당당하게 죽는 길을 택하겠다"고 입장을 공식 표명했다. /연합뉴스

KIA, '벌떼 마운드'로 선두 잡는다

SK와 주말 원정 2연전

"주말 2연전 마운드 수성에 달렸다."

KIA 타이거즈가 1위 자리를 독주하고 있는 SK와이번스와 주말 2연전을 치른다. '5월의 부활'을 벼르고 있는 최하위 KIA는 주말 경기를 통해 1위와의 격차를 최대한으로 줄여야 한다.

문제는 마운드다.

시즌 초반 KIA는 리마-윤석민-서재응-전병두로 이어진 선발진을 보유하면서 어느 팀 못지 않은 높은 마운드를 보유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23경기를 마친 26일 현재 1선발 리마와 4선발 전병두가 2군으로 추락했다. 용병 리마는 개막 이후 2경기에서 13이닝동안 12피안타 2사사구로 4실점만 허용하며 괜찮은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팀 타선의 침체와 맞물려 급격히 페이스가 무너진 리마는 지난 20일 한화와의 경기에서 1과 3분의 1이닝동안 6실점(4자책)하며 2군으로 내려갔다.

첫 등판에서 6이닝 동안 노히트노런을 하며 올 시즌 전망을 밝게했던 전병두도 이후 3경기를 통틀어 6이닝을 겨우 채우는데 그쳤다. 결국 6이닝동안 무려 14실점(11자책)이나 하는 극심한 부진속에 전병두도 리마에 이어 2군에 합류했다.

KIA는 개막 채 한 달도 안돼 2명의 선발진이 이탈하면서 주먹구구식 마운드 운영이 불가피 하다. 마땅한 선발 투수가 없는 KIA는 주말 '벌떼 마운드'로 승부를 가늠해야 할 형편이다.

침묵과 폭발을 오가던 도깨비 타선은 점차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고, 이용규와 발데스의 기동력은 SK의 내야를 흔들기에 충분하다. 경기 초반 마운드가 얼마나 점수를 지켜내느냐에 따라 타선의 움직임도 달라질 전망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스포츠중계

26일 (토)

▲2008 메이저리그 〈뉴욕Y : 클리블랜드〉(07 : 55·XPORTS)

▲2008 프로야구 〈기아 : SK〉(13 : 40·SBS스포츠), 〈롯데 : 삼성〉(13 : 50·X-PORTS·MBC ESPN), 〈두산 : 한화〉(13 : 30·KBS N SPORTS)

▲아시아 유도선수권대회 결승(17 : 30·SBS스포츠)

▲2008 일본 프로야구〈한신 : 요미우리〉(18 : 00·MBC ESPN)

▲2008 K리그 〈부산 : 포항〉(18 : 50·SBS스포츠), 〈수원 : 제주〉(19 : 30·KBS N SPORTS)

▲07/08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첼시 : 맨체스터Utd〉(20 : 30·MBC ESPN), 〈맨체스터시티 : 풀럼〉(23 : 00·MBC ESPN)

27일 (일)

▲07/08 스페인 프리메라리가(03 : 00·KBS N SPORTS)

▲2008 PGA EDS 바이런넬슨 챔피언십 3R (04 : 00·SBS골프·SBS스포츠)

▲2008 LPGA 스탠포드 인터내셔널 프로암 3R (04 : 00·SBS골프)

▲제 42회 대통령배 전국 고교야구대회 〈광주일고 : 마산용마고〉(10 : 00·KBS N SPORTS)

▲2008 프로야구 〈기아 : SK〉(13 : 40·SBS스포츠), 〈롯데 : 삼성〉(13 : 20·X-PORTS·MBC ESPN), 〈두산 : 한화〉(13 : 30·KBS N SPORTS)

▲2008 일본 프로야구〈한신 : 요미우리〉(18 : 00 ·MBC ESPN)

▲WBA 여자 밴텀급 챔피언 챔피언결정전 (19 : 00·KBS N SPORTS)

골프·콘도 회원권거래 전문기업
록펠러 회원권
최첨단 시설을 갖춘 모아레토츠타운으로 확장이전 하였습니다.
상담문의 (062)351-0095